

---

프로그래밍 하면서, 'Do it! 스터디룸'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이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올리고 있긴 했다 ㅋㅋㅋ  
지금은 지웠지만 중학생 때도 나름 열심히 블로그 활동하며 글을 올렸었고...  
근데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는 거지.

드문드문 일기도 쓰고 있고  
대외활동 하면서 레포트 형식으로도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역시 공개적인 곳에 올리고 싶었다.

기록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봐줘야 의미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보다.  
무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이버, 구글에 이것저것 검색하는 것도 결국 남의 기록을 보는 것이고.

오늘 안에 이거 남기기로 혼자만의 약속했는데 벌써 오늘 3분 남았다.  
급마무리 뽐